



춤추고 노래하며 미친듯 놀아라

■ '김장훈·싸이 완타치' 공연 제대로 즐기기

'콘서트계의 귀재' 김장훈과 싸이가 기획사 '공연세상'을 공동 설립하고 첫번째 작품으로 내놓은 '김장훈·싸이 완타치'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대구 공연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나서는 '완타치'는 팬들의 열광적인 호응으로 서울 공연과 부산 공연을 1회씩 늘리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서울 공연의 경우 국내 최대 티켓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의 접속 결과 티켓 판매 일간, 주간, 월간, 연간 1위 등 4관왕의 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광주 공연은 오는 26일 오후 7시 염주체육관에서 열린다.

'완타치' 공연은 1년간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신나는 무대다. 함께 뛰고 노래 부르다 보면 3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 똑같은 공연도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 재미가 달라진다. 티켓 가격 제대로 뽑으면 미친듯이 놀어야 한다.

▲스탠딩 좌석을 노려라

공연의 열기를 '제대로' 느끼려면 무조건 스탠딩 좌석을 잡아라. 이번 공연은 본 무대 뿐 아니라 십자형 무대와 원형무대 등 세트가 많아 가수들이 끊임 없이 돌출 무대로 뛰어나온다. 김장훈과 싸이는 스탠딩석의 관객들과 함

도 있다.

▲따로, 또 같이 꾸미는 무대를 즐겨라
싸이의 '올나이트 스탠딩'과 김장훈의 '원맨 쇼'는 이미 공연계에서 인정받은 히트 상품이다. 이번 공연은 두 사람의 공연 중 '액기스'만 뽑아서 하는 무대이다 보니, 계속되는 히트곡 메들리에 관객들은 훨씬 즐겁다.

두 사람이 제대로 불는 세번째 무대는 유쾌

는 싸이의 한 마디에 2~3층 객석의 관객까지 모두 일어나 밤을 구르며 점프를 하며 뛰고 노래 부르는 등 공연은 아예 전선 스탠딩 개념이 있다.

스트레스가 단숨에 날아가도록 마음껏 뛰고 즐겨라. '낙원', '챔피언', '난 남자다' 등 두 사람의 히트곡 뿐 아니라, '붉은 노을', '여행을 떠나요' 등 히트 가요들이 즐비하니 마음껏 따라부르다 보면 가슴이 확 터진다.

▲무대 장치와 조명을 만끽하라
'완타치' 공연의 재미는 다양한 무대 장치와 세트다. 두 사람의 무대는 이미 공연계의 히트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공연 역시 카이스트가 특별 제작한 세트, 무대를 가득 채우는 인형, 순간 이동하는 싸이 등 화려한 무대와 재기 넘치는 아이템 등 별거리가 풍성하다. 또 공연장 곳곳에 감춰진 조명 세트에서 쓰러지는 화려한 조명은 레이저 쇼를 연상케 한다. 월 새 없이 쓰러지는 두 사람의 입암 역시 공연을 즐겁게 하는 필수 요소다. 티켓 가격 11만원~6만6천원. 문의 1588-0766.

/김은기자 mekim@kwangju.co.kr

스탠딩석서 뛰놀면 1년 스트레스 '싹~'

광주 공연은 26일 오후 7시 염주체육관

께 소통하며 즐거움을 전한다. 원형무대는 R석 스탠딩 자리까지 돌출돼 있으니 춤추고 노래하는 그들의 열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필히 스탠딩 좌석을 노릴 것.

체력 걱정은 하지 마시라. 발라드곡이 나올 때 조금씩 쉬면 된다. 특히 김장훈의 '원맨 쇼'에서는 스탠딩 관객들에게 작은 선물도 나눠 주니 운이 좋다면 행운을 잡을 수

하다. 요즘 한창 뜨는 걸그룹으로 변신한 두 사람의 모습은 즐거움을 주며 서로 노래를 바꿔 부르는 무대에서는 싸이의 노래 실력도 만날 수 있다.

▲목청껏 노래하고, 뛰면서 놀아라
무대에 싸이가 등장, 첫 곡 '환희'를 부르기 시작하면 관객들은 흥분하기 시작한다. 미리 관람했던 대구 공연의 경우 "모두 일어서"하

디자인비엔날레 '소리' 섹션 칸느 간다

소쇄원 녹음 국악음반 ... 세계 최고 음악박람회 '미템' 출품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18일 ~ 11월 4일)의 '소리' 섹션은 프랑스 칸느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의 음악 박람회인 제44회 '미템'(MIDEM·2010년 1월 24~27일)에 출품된다.

미템은 전 세계 음반 제작 및 배급사가 모이는 국제 음악 마켓으로 올해 행사에는 80여개국, 4천여 업체가 참가한다.

국악 전문을 반사 '악당(樂黨) 이빈' 대표 김영일씨가 기획한 '소리' 섹션은 디자인 소쇄원과 광주시 남구 양립

동 이장우 가곡에서 녹음한 국악을 전시장에서 들려준 이색 전시였다.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하는 과정에 담긴 디자인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미템에는 지난 9월 10일 디자인 소쇄원에서 출정현(광주예술고 교사)씨가 연주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와 지난 11월 1일 이장우가곡에서 서영호씨가 연주한 서용석류 아쟁 산조를 녹음한 음반이 출품된다.

이들 음반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SACD(super audio compact disc)로 녹음된 국악이다. SACD는 CD의 재생 환경을 넘어서 연주회장의 공기까지도 충실히 재현할 수 있다는 평을 받는 신기술이다.

김영일씨는 "이들 음반은 이달 말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고, 미템에서 음원이 판매된다면 국제무대에서 국악의 아름다움과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픽록기자 kroh@kwangju.co.kr

조수웅 문인협전남지회장

예술문화상 지역부문 대상



(사)한국문인 협회 전남지회 조수웅(67·사진) 회장이 제23회 예총 예술문화상 지역부문 대상을 받는다.

조 회장은 '예술광주' 편집고문을 오래 맡았으며 2006년부터 전남문인 협회를 이끌어오고는 등 지역 문학계는 물론 예술문화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문학률' 내일 2009 세밀잔치

광주에서 발행하는 종합문예지 '문학률'(발행인 송광룡)이 2009년 한해를 되돌아보는 세밀잔치를 마련했다. 11일 오후 6시30분 광주시 북구 일곡동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늘 궁리, 살 궁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신인상·오월문화상 시상식과 함께 판소리 공연, 시낭송, 시노래 공연 등이 펼쳐진다.

문의 062-651-696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우리가족 부르기' 송년 행사

내일 호신대 티브라운

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꾸준히 모임에 참여했던 회원들의 발표 무대로 꾸며진다. 레퍼토리는 '석굴암', '님이 오시는지' '목련화', '그리운 금강산', '그대 있음에', '비목', '고향의 노래' 등 우리에게

친숙한 가곡이며 표형섭·김현철·최기영·차주원·박영자씨 등이 무대에 선다. 함께 '기다리는 마음', '언덕에서', '님이 오시는지'를 부르는 시간도 갖는다.

또 1년 동안 모임의 역사를 영상으로 감상하는 시간도 갖는다. 참가비 1만원을 내면 간단한 차와 먹을거리로 즐길 수 있다. 문의 016-694-45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카메라 앵글에 담긴 '고향 풍경'

'21·빛모임' 展 14~27일 명지미술관

시골 흙마루에 어리던 겨울 햇살이 카메라 앵글에 영광이다. 담양군 고서면 명지미술관(관장 명지선)은 오는 14~27일 사진가 모임인 '21·빛모임'(회장 김철수)의 9번째 정기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진정, 양승원, 한종호, 송창근, 정태호, 김철수, 김명자, 김성민, 배상만, 신현정, 박현진, 이현빈씨 등이 참여해 '고향 풍경'을 주제로 따뜻한 남도의 풍경을 사진에 담아 선보인다.

김진정씨는 산사의 흐릿한 여유가 느껴지는 '산사의 대화'를 출품했다. 스님들이 벗어 둔 하얀 고무신과 나무 그늘이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한 아기자기한 풍경을 포착했다.

또 김명자씨는 바람에 물기를 말리고 있는 천연 열색 천을 자유분방하게 표현한 '며과 일'을 전시한다. 고운 천에 물들어 가는 자연의 빛깔과 푸른 하늘의 조화를 이뤄 안정감을 주는 작품이다.

이 밖에 신현정씨는 붉은 꽃을 말리고 있는 농촌 풍경을 잔잔하게 담아낸 '가을의 노래'를 선보이고, 이현빈씨는 상추밭의 푸른 빛을 여과 없이 담은 '선의 합창'을 내놨다.

한편 지난 1998년 창립된 '21·빛모임'은 명지미술관의 '명지원 사진 창작 아카데미'에서 사진 작가 강봉 규씨를 사사한 수강생들의 모임이다. 문의 061-383-2577.



김철수 작 '가을향기'

대출대상

- 직장인(또는 배우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대출금액

- 최저 200만원~최고 5,000만원

대출기간

- 1년 ~ 최장 4년까지(6개월 단위)

대출금리

- 100만원당 1년 만기 상환시 월 4천 500원부터

신용도를 관리해 드리는 채우통합서비스

타사에서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고객님께 더 나은 신용도를 열어드리는 채우통합 서비스!

최급수료 면제 및 월 납입금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2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

citi 신용대출 직장인 사업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

전화 010-7167-3838

인터넷뱅킹 010-7637-7743, 010-4703-6223, 011-623-8972

광문공인증개사

062-365-1920

모텔 임대 매매 전문

- 대지 ⇒ 350평, 건평 600평 월순소득 2,000만원 이상 확보
- 교환조건 ⇒ 모텔, 땅, 토지, 임야, 해남군
- 일반모텔 월매출 5천이상 급 매매가 15억원 은행대출 8억 실투자금 7억 OK

- 전국 모텔 임대 매매 전문 → 손님이 와글와글하고 알짜배기 모텔!
- 순천 모텔 임대 보증금 3억 월 900만원 목포 해안도로쪽 모텔 급 매매 다량 확보!

- 3~4억 투자하시면 매월 1,000만원 이상 소득 확보! 등기필 100%

- 목포→모텔, 사우나, 주차장, 세차장

동북아 경제 중심지.. 서해안, 새만금을 주목하라!

새만금~변산~고시포~격포~상록~모항 해수욕장 까지의 투자 벨트 형성

○검증된 추천 물건○

- 상그해 수욕장이 보이는 펜션부지 300평(전) - 평당 80만원 150평(전) - 평당 80만원 470평(전) - 평당 150만원(상가 및 펜션, 분할 가능)

- 격포 바닷가, 펜션, 모텔 부지 500평 - 평당 180만원(대, 전, 모텔, 1동 포함)

- 전원주택 및 투자부지 1000평 - 평당 25만원(전)

- 500평 - 평당 60만원(부인네임, 주택 1동포함)

- 투자물건 디랑크보증소액부터 딱지까지)

- 1200평(전) - 평당 35만원 (2~300평 분할 가능)

- 투자물건 디랑크보증소액부터 딱지까지)

-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펜션 투자시, 광주지역

-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는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초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 적기

- 오랜 실무경험으로 매입에서 매도까지 책임증개

- 상가/모텔 투자 물건(지상 5층)

- 월도음, 중심 상권내 대지 80, 건평 320평

<li